

프랑스 가이드라인 요약 안내서

목재합법성 인증서류		프랑스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비고
목재이용법률 제19조의3제2항	수입되는 목재·목재제품의 합법벌채 판단 세부기준 고시 제3조		
제 1 호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원산국의 법령에 따라 발급된 벌채허가서	-
제 2 호	합법벌채된 목재 또는 목재제품을 인증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FS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ontrolled Wood Certification	- FSC 인증서 (56,204ha가 FSC 인증을 받음)
		나 PEFC에 의해 발급된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Chain of Custody Certification	- PEFC 인증서 (8,200,000ha가 PEFC 인증을 받음)
		다 국가별로 PEFC와 상호 인정하여 등록된 것으로서 [별표]에 기재된 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PEFC France 인증서
		라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의 이용을 위한 국제 인증체계(ISO17065 체계에 따른 제3자 인증을 포함한다)에 따라 발급된 것으로서 목재가 합법적으로 벌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제 3 호	우리나라와 원산국 양자 협의에 따라 상호 인정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 수출국의 정부 또는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에서 운영하는 산림인증제도에 따라 발급된 인증서류	-

제 4 호	그 밖에 합법벌채되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가 유럽연합(European Union)이 운영하는 「산림법집행, 거버넌스 및 거래에 관한 자발적동반자협약」 (Forest Law Enforcement, Governance and Trade-Voluntary Partnership Agreement, FLEGT-VPA)에 근거하여 수출국이 구축한 관리체계에 따라 발급하는 인증서류	-	
		나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수출허가서	-	
		다 수출국의 정부 또는 동 정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해당 목재 또는 목재제품이 합법벌채 되었음을 확인하는 도장(서명)이 날인된 운송허가 또는 포장명세서 등의 확인서류	-	
		라 불법적으로 벌채된 목재의 교역제한을 위한 법령 및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수출국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서류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수출업자가 작성, 서명한 서류 (2013년 3월 3일에 발효된 유럽목재규정(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 EUT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므로 프랑스에도 적용된다.)	별지 제1호 서식
		마 기타 우리나라와 수출국 간 양자 협의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성과 합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프랑스 가이드라인

프랑스 합법 목재 또는 목재제품 가이드라인

1 프랑스 산림관리 개요

프랑스는 산림의 지속가능한 벌채를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산림자원의 경제적 공정가격설정 추진 등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시행을 통해 산림의 다원적 기능을 지원한다.

프랑스 본토

프랑스 본토의 임지는 국토의 31%인 1600만ha이다. 이는 26억m³의 임분재적을 나타낸다(침엽수: 10억m³,낙엽수: 16억m³).

프랑스의 해외영토

프랑스 해외영토의 임지는 830만ha이다(97%가 프랑스령 기아나에 위치). 주로 열대우림이다.

프랑스령 기아나의 주요 산림은 산림청(ONF - Office National des Forêts)이 관리한다. 벌채는 환경적 영향이 낮은 벌채정책에 따라 시행된다. 평균적으로, 수확률은 ha당 10~20m³이며, 임목은 ha당 330m³이다.

1.1 산림소유권

두 개의 주요 산림소유권 범주(공유와 사유)가 있다.

공유림은 국가 산림면적의 약 25%를 차지하며, 일부 공공 소유주를 포함한다.

- **국유림**: 이러한 산림은 ONF의 소유이다. ONF는 국유림을 직접 벌채하고, 입찰을 통해 벌채된 목재를 판매한다. 평균 면적이 1,300ha인 1,296개 국유림이 있다.
- **지방 및 지역 당국소유 산림**: 지자체가 관리, 벌채 및 판매하는 산림을 소유한다. 평균 면적 186ha의 15,000개 이상의 산림을 지자체가 소유한다.

사유림은 국가 산림면적의 약 75%를 차지한다. 약 330만 명의 사유림 소유주가 있다. 산주의 13%가 산림면적의 80%를 소유하며, 이들 중 67,000명이 25ha 이상을 소유한다. 프랑스 본토의 경제적 사유림 개발은 주로 이러한 25ha 이상의 재산을 포함한다. 이 규모의 산림에는 지속가능한 관리문서가 있어야 한다(관련 지속가능한 관리문서는 6.2.1에 설명).

1.2 국내 벌채 목재 판매의 주요 행위자들

(i) 산림청(ONF)

ONF는 공유림 관리를 담당하는 상업 및 산업중심 공공기구이다. ONF는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매년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목재의 약 40%를 상용화한다(오크의 약 50%, 전나무/가문비나무의 35%와 너도밤나무의 90%).

(ii) 산림협동조합

프랑스 산림협동조합(Union de la Coopération Forestière Française)은 프랑스 전역 19개의 산림협동조합과 관리그룹으로 구성된다. 모든 협동조합은 총 산림면적 185만ha에 105,0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들은 연간 수확량의 약 20%를 판매한다.

10개의 산림협동조합이 국가 생산자 조직(PO)의 인정을 받는다. 이러한 PO 지위를 통해서 관련 사업들은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위한 자원을 모을 수 있다. 생산량 요건을 제외하면, PO 지위는 추적성 표준에 따라 환경을 고려하여 부여된다. PO들이 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수량의 90%를 확보한다. 농림부(Ministry of Agriculture) 지역청이 이들을 정기적으로 모니터한다.

(iii) 산림 전문가

산림 전문가는 산림부문의 전문성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지속가능한 관리문서를 작성하고 소유주를 대신하여 매매거래를 준비한다. 이들은 매년 모든 산림 전문가의 목록을 작성하고 그들의 직업상 의무 준수를 확인하는 국가농림업 전문가위원회(National Council of Agriculture and Forestry Experts) 하에서 규제된 직업을 수행한다. 전문가들은 자신이 관리하는 구역의 목재를 매입하거나 이러한 목재에 대한 임업을 수행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주로 공동판매를 통해 전체 상용화 양의 약 10%를 판매한다.

(iv) 사유림 소유주 및 별채업자

협동조합이나 산림 전문가와 연계되지 않은 사유림 소유주가 매년 판매되는 목재수량의 3분의 1 미만을 직접 상용화한다. 산림 전문가와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이들은 산림법 규정 및 국가 관습법의 적용을 받는다.

2 프랑스 산림에 관한 법과 규정

2.1 산림법의 주요 출처

산림법(Forestry Code)은 프랑스 공유림 및 사유림의 지속가능한 산림관리를 위한 중요한 법적 기반과 공인된 목재별채제도를 제공한다. 산림법규는 제1권 “모든 산림 및 목재에 대한 공통조항(Book I “Common provisions for all forests and timber)에 포함된 조항들을 명시한다.

2014년 10월 13일에 공표된 ‘농업, 농식품 및 산림의 미래(Future for Agriculture, Agri-Food and Forest)’ 입법개정은 지속가능한 관리문서 시행을 촉진하고, 유럽목재규정(EUTR) 미준수에 대한 제재 시스템 통합을 포함하여 불법별채 목재나 목재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퇴치하는 조치를 마련했다.

2013년 3월 3일에 발효된 유럽목재규정(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 EUTR)은 모든 유럽연합 회원국에 적용되므로 프랑스에도 적용된다. 규정 996의 6조에 따라, EUTR은 운영자들이 조달하는 목재의 합법성을 보장하기 위해 실사 시스템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EUTR은 EU 이외 지역에서 수입된 목재제품과 최초 판매된 프랑스 목재에 적용된다. 산림 운영자와 ONF가 목재의 주요 판매 대부분을 수행한다.

2.2 별채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산림법의 다른 출처

환경법(Environment Code)이 산림관련 보호 메커니즘을 포함한 환경보호와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을 명시한다. 예시는 다음과 같다.

- “NATURA 2000” 구역: 산림 별채에는 동식물에 대한 제안된 활동의 잠재적 결과를 확인하는 영향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도시계획법(Urban Planning Code)이 “명단에 있는 산림(Listed Woodland)” 지역 지정 등 산림활동에 영향을 주는 조항들을 포함한다. 이러한 지역에서는 산림보전에 해가 될 수 있는 모든 활동이 규제된다. 별채는 가능하지만 사전 통보가 필요하다.

프랑스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든 규정(주로 상업적, 사회적 및 세금 규정)은 그 활동(별채, 개발, 수입 등)이 무엇인지 상관없이 산림부문의 사업들에 적용된다.

세금징수, 노동법, 공중보건과 세관 시행을 담당하는 당국들이 각 담당분야에서 정기적인 통제를 수행한다.

2.3 규정 시행을 담당하는 정부당국

농림식품부(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AA -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l’Alimentation)가 산림을 담당한다. 농림식품부는 산림부문의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 산림, 목재, 말과 생물경제학 부서(la Sous-Direction des filières Forêts Bois Cheval et Bioéconomie)가 국가차원에서 산림부문과 관련한 정부 시행계획을 수행한다. 이 부서는 산림/목재 산업과 관련한 정부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률 및 규제문서를 작성하고, 장관실과 협력하여 산림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제공하고, 분권화 부서를 관리한다.

- MAA의 분권화 부서는 다음을 포함한다.
 - 지역차원: **지역 식품, 농업 및 산림 부서(DRAAF** - Directions Régionales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가 산림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한다.
 - 부서차원(지역 하위부서): **부서의 영토담당부서(DDT** - les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s Territoires)가 산림법규의 시행을 모니터한다.

생태 및 연대 전환부(MTES - 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et Solidaire)가 ‘주택-도시 개발’ 및 ‘에너지-기후’ 활동을 통해서 산림-목재 부문의 개발을 담당한다.

- EUTR의 일환으로, MTES의 부서별 서비스가 목재 수입업체를 모니터 한다. 이들은 또한 환경 및 도시계획법의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시행을 모니터하는 규제에도 관여한다.

3 국내목재벌채

3.1 지속가능한 관리문서

법률체계는 산주들의 ‘**지속가능한 관리문서**’ 작성을 기본으로 한다. 어떤 유형의 문서를 작성할지는 산림소유 범주와 벌채되는 산림의 사양에 따른다.

작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리문서의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 (i) 개발문서(Le document d'aménagement)
- (ii) 단순관리계획(Le Plan Simple de Gestion)
- (iii) 표준관리규정(Le règlement type de gestion)
- (iv) 모범산림관행코드(Code de bonnes pratiques sylvicoles)

이러한 특정 문서 중 하나를 작성함으로써, 산주들은 다른 공식적인 요건 없이 벌채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특히 벌채계획과 같은 관련 문서에 명시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2015년, 프랑스 본토 산림 1600만ha 중에서, 750만ha가 지속가능한 관리문서의 대상이다.

- 공유림 430만ha가 개발문서 또는 표준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 단순관리계획이 적용된 사유림 80%(거의 300만ha)가 최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나머지 20%에는 벌채허가서가 필요했다.
- 사유림 245,000 ha가 모범산림관행법의 적용을 받았다. 그리고
- 사유림 48,000 ha는 표준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았다.

개발문서(Development Document)는 국가 또는 지방당국이 소유한 공유림에 대해 작성된다. 이 문서는 강력한 경제 및 환경적 잠재력을 보유한 대규모 공유림에 적용된다.

- 각 국유림에는 해당 특정 산림에 맞춰 작성된 개발문서가 있다. ONF가 이 문서를 작성하고 시행한다.
- 기타 공유림의 경우, 관련 공공 소유자들과 함께 ONF가 개발문서를 작성한다. 이 문서는 승인을 위해 지역 도지사에게 제출된다.

개발문서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목표를 고려하여, 10년에서 20년 기간 동안의 산림벌채 목표와 벌채지역에 대한 목적을 설정한다. 이 문서에는 산림자연환경의 분석과 경제, 사회 및 환경 니즈의 분석이 포함된다. 벌채계획도 포함한다.

단순관리계획(Simple Management Plan, SMP)은 사유림 소유자들을 위해 작성되

며, 대규모 사유림에 더 적합하다. SMP는 개별 산림에 맞춰 작성되고 25ha 이상의 사유지에는 의무적이다. SMP는 10년에서 20년 동안 사유지 관리를 제공한다.

SMP는 산림 전문가나 사유림 관리자가 사유림 소유주를 대신하여 작성한다. 이 문서는 승인을 위해 산림이 위치한 관할지역의 지역산림소유권센터(Centre Rég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에 제출된다.

SMP는 산림과 관련한 경제, 환경 및 사회적 문제의 분석과 다양한 임분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다. 벌채 유형, 위치 및 빈도와 수확률을 명시하는 벌채계획도 포함된다.

예외적인 경우(예. 자연재해), 특별 벌채가 허용될 수도 있다.

표준관리규정(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 SMR)은 그것이 적용되는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의 양식을 규정한다. SMR은 산림 전문가, ONF나 산림협동조합이 작성하는 표준 문서이며, 산림이 위치한 관할지역의 지역산림소유권센터에 의해 승인된다.

SMR은 중간규모 산림에 적합하다. 또한 비교적 크지 않은 경제 잠재력을 가진 공유림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공유림의 경우, SMR이 개발문서 대신에 사용된다.

SMR은 다음을 포함한다.

- 계획된 벌채의 유형,
- 고려중인 벌채의 범위 및 유형의 평가,
- 두 번의 벌채 사이에 계획된 순환 기간, 벌채된 목재의 연령 및 직경에 대한 상세사항,
- 임분의 유지와 필요시 재생에 필요한 작업에 대한 설명.

모범산림관행(Code of Good Forestry Practice, CGFP)은 산림구역의 다양한 유형의 지속가능한 벌채를 수행할 목적으로, 지역 경제 및 환경적 맥락에 맞춰진 각 자연 지역에서 산림관리요건을 설정하는 일련의 가이드라인으로 구성된 표준 문서이다.

CGFP는 소규모 벌채작업을 위한 유연한 관리체계를 필요로 하고 SMP를 적용할 의무를 가지고 있지 않은 소규모 사유림 소유자들에게 더 적합하다. 10년 기간에 대한 CGFP 준수에 동의한 사유림 소유자는 CGFP에 참여할 수 있다. 등록을 하면, 소유주들은 재산 목록과 산림 표본점의 부지계획을 당국에 넘겨준다. CGFP는 지역산림소유권센터가 작성하고 지역 도지사가 승인한다.

3.2 행정적 벌채허가제도

지속가능한 관리문서가 작성되지 않은 산림에서 벌채를 수행하는 것이 여전히 가능하다. 임계점은 국가산림당국과 협력하여 지역당국이 설정한다. 계획된 벌채가 임계점을 넘는 경우, 지역 도지사가 발행한 허가서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1ha에서 4ha 사이인 임계점은 지역의 지리학적 특성 및 산림 특성에 따라 지역당국이 설정한다.

4 국내 목재가공

4.1 구매자에게 목재 공급

구매자에게 목재를 공급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 (i) 벌채를 수행하여 목재를 판매하는 벌채업자에게 임목이 직접 판매된다.
- (ii) 목재가 벌채되어 도로 옆에 있는 구매자에게 공급된다(구매자가 운재차를 이용한 목재운송 및 산림의 벌채된 목재 수집 비용을 부담한다). 또는,
- (iii) 목재가 벌채되어 구매자에게 직접 공급된다. 일반적으로 2차 가공사업 (“공장배송(delivered-to-factory)” 목재).

입목의 판매는 “도로 옆(side of the road)” 과 “공장배송(delivered-to-factory)” 에 유리하게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정부가 국유림 및 지역 산림에 이러한 관행 변화를 장려한다.

4.2 프랑스의 1차 가공산업

목재가 별채되면, 2차 가공산업에 팔기 전에 제재소가 1차 가공을 실시한다. 1차 가공 중 생산된 관련 제품들이 1차 가공산업을 지탱한다. 주요 1차 가공산업은 다음과 같다.

- 펄프 및 판지 산업: 기계 펄프, 화학 펄프, 종이 및 판지
- 베니어판 및 판넬 회사: 파티클 보드, 파이어 보드, 단열판, MDF, OSB
- 합판 산업: 합판, 하드보드

4.3 프랑스의 2차 가공산업

주요 2차 가공산업은 다음과 같다.

- 목조 가구,
- 소목, 목공 및 바닥재,
- 포장 및 목조 수송 구조물.

5 프랑스의 합법제품 확인

5.1 목재제품 수출

별채의 합법성을 입증하는 표준 문서가 없다.

- 통나무의 경우, 수출된 통나무에 대한 수출위생처리가 실시되는 지역의 DRAAF가 수출인증서를 발행한다.

국제식물보호협약의 각 회원국에게는 애완동물(pets)의 수입 및 시설에 반하여, 산림을 포함한 자국의 자원을 보호하는 규정을 만들 권리가 있다.

수출국의 국가식물보호기관(NPPO)(프랑스의 농림식품부)이 식물, 식물제품이나 기타 규제된 품목의 위탁화물이 상업적으로 규정된 식물위생 수입요건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식물위생 인증서를 발행한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검사의 결과에 따라 수출국의 NPPO가 식물위생 인증서(수출 인증서)를 발행한다.

- 수입업자는 적절한 세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프랑스에서 제3국으로 수출되는 목재 및 목재제품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세관절차가 없다. 목재 및 목재제품은 수출금지 대상이 아닌 상품과 동일한 수출신고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

운영자가 따라야 하는 여러 단계는 다음과 같다.

1. 수출업자는 자신이 의존하고 상품이 포장되거나 적재되는 세관에서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수출신고는 전자방식으로 처리된다.
2. 세관이 수출신고를 처리한다.
3. 세관이 반출 지시서를 발행한다(상품 통관).
4. 제품이 제품 출국 세관(EU 국경사무소)으로 운송된다. 이러한 운송 중에는 수출서류가 동반된다(또는 수송절차와 관련한 증거).
5. 수출업자가 출국 세관에 제품의 도착을 통보한다.
6. 수출 세관이 제시된 제품들이 신고된 제품들과 상응하는지 확인한다.
7. 운송회사가 출국 사무소에 전자방식으로 제품의 출국을 통보한다.
8. 출국 세관이 유럽연합 영토에서 제품이 물리적으로 출국했는지 확인하고 수출 사무소로 출입을 확인한다.
9. 출국확인을 고려하여 수출 사무소가 전자 수출 인증서를 발행한다.

5.2 산림법 준수 모니터링

특히 분권화 부서인 DRAAF와 DDT 등 MAAF의 통제 하에서 산림법규 준수가 관리된다.

- DRAAF는 EUTR과 관련하여, 프랑스 목재의 벌채업자에 대한 통제를 수행한다. EUTR 통제는 이 부서가 관리되는 회사가 실사를 입증하는 문서를 가지고 있다고 확인하는 서류검사로 구성된다. 그 후에 현장 검사가 실시된다. 결함이 발견되면, 당국은 회사에게 실사과정을 개선하도록 요구하거나 직접 재정적 제재 또는 형사제재를 가할 수 있다.
- DDT는 산림법규 조항 준수에 관한 통제를 수행한다. 예를 들어, 지속가능한 관리문서의 적절한 시행을 관리한다. 그들의 직무에 따라, 이 부서 관계자들은 위반사항을 제기할 수 있는 형사정책 권한을 가지고 있다. ONF 관계자들도 동등하게 공유림에서 위반을 보고할 권한이 있다. 2016년, 약 500건의 위반사항이 보고되었으며, 이중 200건이 기소되었다.

전반적으로, 국제시장에 나온 불법목재의 위험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검사당국이 실시한 통제 빈도, 절차의 투명성, 낮은 부패위험 덕분에 산림법규 및 기타 국내법 규정이 효과적으로 시행된다.

당국의 통제는 중요한 산림재산과 가공회사들에 집중된다. 국제시장에서 거래되는 프랑스 목재는 위험이 매우 낮은 이러한 생산자들에게서 주로 공급된다.

소규모 산림재산에서는 통제가 그렇게 자주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이러한 소규모 표본점에서는 불법벌채의 위험이 미미하다. 이러한 표본점에서 생산된 목재는 국제시장보다는 거의 내수용이다.

5.3 프랑스에서 사용하는 민간 인증시스템

수입하고자 하는 규제된 목재제품이 산림인증승인프로그램(PEFC)이나 산림관리 협의회(FSC)의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실사를 실시하기 위해 ‘목재합법성 프레임워크’ 경로를 따를 수 있다.

● PEFC 인증

PEFC는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산림인증이다. ONF는 지속가능한 공유림 관리를 위해 PEFC 인증시스템에 전념하고 있다. ONF는 ISO 9001과 ISO 14001 인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PEFC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인증제도(국유림의 100%와 지자체 산림의 57% 포함)의 일원이다. 2차 가공산업을 위해 PEFC가 목재기반 제품의 추적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관리 연속성 인증을 개발했다.

PEFC 데이터에 따르면, 68,000명의 산주를 대표하는 820만 ha의 산림이 인증되었고, 3천개 회사가 인증되었다.

● FSC 인증

2017년 시작 이후로, ONF는 FSC의 인증 과정에 있다. FSC는 산림과 공급망을 인증한다. FSC 데이터에 따르면, 프랑스에서 56,204 ha의 산림과 745건의 관리 연속성이 인증되었다.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DE L'ALIMENTATION

Direction générale de la performance économique
et environnementale des entreprises

Service du développement des filières et de l'emploi

Sous-direction des filières forêt-bois, cheval et
bioéconomie

Bureau des entreprises forestières et des industries
du bois
3, rue Barbet de Jouy
75349 Paris 07 SP

Rédacteur : Célia DIDIERJEAN
Tél : 01 49 55 40 94
Email : celia.didierjean@agriculture.gouv.fr

Jae-Hyun Kim, Ph.D
Ministerial Korea Forest
Services Republic of Korea

Subject : French guidelines on legal timber or
timber product.

Paris, le

1 – Overview of Forest Management in France

France aims to support the multi-functionality of the forest,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including providing programs for sustainable logging of forests and promoting economic valorisation of forest resources.

Metropolitan France

The forest cover for metropolitan France is 31% which amounts to 16 million hectares. This represents a standing volume of 2.6 billion m³ (Coniferous: 1 billion m³; Deciduous: 1.6 billion m³). The commercialised timber harvest has been comparatively stable in the last few years (2014: 37.7 million m³).

French Overseas Territories

The forest cover for the French overseas territories amounts to 8.3 million hectares (97% is located in French Guiana). This is predominantly tropical forest.

The primary forest in French Guiana is managed by the National Forestry Office (ONF - *Office National des Forêts*). Logging is carried out under the terms of an environmentally low-impact logging policy. On average, the harvesting rate is between 10 - 20 m³ per hectare whereas the standing timber is estimated at 330 m³ per hectare.

1.1 - Forest Ownership

There are two main categories of forest ownership: public and private ownership.

Public forests constitute about 25% of the national forest area and include several public owners:

- **State-owned forests:** these forests are owned by the ONF. The ONF directly logs State forests and sells the logged timber by tender. There are 1,296 State forests with an average area of 1,300 hectares.

- **Local and regional authority owned forests:** Municipalities own forests which they manage, log and market. More than 15,000 forests are owned by municipalities with an average area of 186 hectares.

Private forests constitute about 75% of national forest area. There are about 3.3 million private forest owners. 13% of forest owners possess 80% of the forested area and 67,000 of them own forest areas over 25 hectares. The economic exploitation of private forests in metropolitan France mainly involve those properties over 25 hectares. Forests of this size are required to have a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 in place (the relevant type of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 is outlined at section 6.2.1).

1.2 - Primary actors for marketing domestically harvested timber

(i) National Forestry Office (ONF)

The ONF is a commercial and industry-oriented public body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of public forests. The ONF commercialises around 40% of the timber marketed in France each year (approximately 50% of the Oak, 35% of the Fir/Spruce, and 90% of the Beech) through developing supply agreements.

(ii) Forestry Cooperatives

The Union of French Forestry Cooperatives (*Union de la Coopération Forestière Française*) is made up of 19 forestry cooperatives and management groupings spread over France. All cooperatives have 105,000 members for a total forest area of 1.85 million hectares. They market around 20% of the yearly marketed harvest.

Ten forestry cooperatives are recognised by the State as Producers Organisations (PO). This PO status allows the associated businesses to pool their resources to produce more efficiently. The granting of PO status is subject, apart from a production volume requirement, to standards of traceability and respect of the environment. POs secure 90% of the quantities marketed by the cooperatives. They are regularly monitored by the Ministry of Agriculture regional services.

(iii) Forestry Experts

Forestry experts undertake expertise assignments in the forestry sector. They produce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s and organise sale transactions on behalf of owners. They form a regulated profession, under the National Council of Agriculture and Forestry Experts (*Conseil National de l'Expertise Foncière Agricole et Forestière*) that each year lists all the forestry experts and ensures compliance with their professional duties. The experts are not allowed to buy timber from the blocks they manage or to undertake forestry work on them. The experts market around 10% of the overall commercialised volume, primarily through joint selling.

(iv) Private forest owners and loggers

Private forest owners, not connected with cooperatives or forestry experts, directly commercialize less than one third of the wood quantities marketed each year. Like forestry experts and cooperatives, they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of forestry law and national common law.

2 - Laws and regulations governing forestry in France

2.1 - Main sources of forestry law

The **Forestry Code** provides the main legislative basis for France's sustainable forestry management of public and private forests, and authorised tree felling regimes. The Forestry Code sets out the provisions under , contained in Book I "Common provisions for all forests and timber".

The '*Future for Agriculture, Agri-Food and Forest*' legislative amendment published on 13 October 2014 facilitated the implementation of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s, and provided for measures to combat the import and sale of illegally logged timber or timber

products including the integration of a system of sanctions for non-compliance with the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EUTR).

The *European Union Timber Regulation* – EUTR, which came into force on 3 March 2013, applies to France as it does to all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According to Article 6 of Regulation 995, the EUTR requires that operators have a due diligence system in place to ensure the legality of the timber they source.

The EUTR applies to timber products imported from outside the EU, and to French timber marketed for the first time. Forestry operators and the ONF carry out the majority of primary marketing of timber.

2.2 - Other sources of forestry law that impact on logging activity

The *Environmental Code* sets general rules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including protection mechanisms concerning forestry. For example:

- The “NATURA 2000” zones: The logging of forests must be preceded by an impact study which identifies potential consequences of the proposed activity on the flora and fauna.

The *Urban Planning Code* contains provisions that affect forestry activity, including the designation of areas as “Listed Woodlands”. In these areas, all activity that could compromise the conservation of forests is regulated. Felling is possible but requires prior notification.

All regulations applicable in France (notably commercial, social and tax regulations) apply to businesses in the forestry sector, whatever their activities (logging, exportation, importation, etc).

Authorities responsible for tax collection, implementation of labour laws, public health and customs carry out regular controls, each in their area of responsibility.

2.3 - Responsible government authorities for the implementation of regulations

The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MAA - Le Ministère de l'Agriculture et l'Alimentation)* is in charge of forestry. It develops and implements policies in the forestry sector.

- The Forestry, Wood, Horse and Bio-economics Branch (*la Sous-Direction des filières Forêts Bois Cheval et Bioéconomie*) implements government action plans at the national level regarding the forestry sector. It prepares legislation and the regulatory documents aimed at implementing government policies regarding the forestry/timber industry, provides overall direction of forestry policy in coordination with the Minister's office, and controls the decentralised services.
- The Decentralised services of the MAA include:
 - At the regional level: **Regional Directorate for Food, Agriculture and Forestry (DRAAF - Directions Régionales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organise and implement forestry policy;
 - At the departmental level (regional subdivisions): **Departmental Directorates of Territories (DDT - les Directions Départementales des Territoires)** monitors implementation of the forestry code.

The *Ministry of Ecological and Solidarity Transition (MTES - Le Ministère de la Transition Ecologique et Solidaire)* have a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forest-wood sector through their activities in 'housing-urban development' and 'energy-climate'. Their activities contribute to the valorisation of the French forestry sector.

- The departmental services of the MTES monitor wood importers as part of the EUTR. They are also involved in the controls to monitor implementation of measures for protec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the environment and urban planning codes.

3 - Domestic timber harvesting

3.1 -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ation

The legal framework is based on the preparation of a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 by forest owners. Which type of document prepared is dependent upon the category of forest ownership and the specifications of the forest to be logged.

The four types of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ation that can be prepared are:

- (i) Development Document (*Le document d'aménagement*)
- (ii) Simple Management Plan (*Le Plan Simple de Gestion*)
- (iii) 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 (*Le règlement type de gestion*)
- (iv) Code of Good Forestry Practice (*Code de bonnes pratiques sylvicoles*)

By preparing one of these specific documents, forest owners can undertake fellings without any other formal requirements. However, they must abide by the rules set out in the relevant document, particularly the felling plans.

In 2015, out of the 16 million ha of forest in metropolitan France, 7.5 million ha are subject to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ation.

- 4.3 million ha of public forest were covered by Development Documents or by a 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
- 80% (or nearly 3 million ha) privately-owned forests for which a Simple Management Plan was applicable, had an up-to-date plan. For the remaining 20%, felling permits were therefore necessary;
- 245,000 ha of private forest were covered by a Code of Good Forestry Practice; and
- 48,000 ha of private forest were covered by a 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

The *Development Document* is prepared for public forests, owned by the State or the local authorities. They apply to large public forests with a strong economic and environmental potential.

- Each State forest has its own Development Document which is prepared and tailored to that particular forest. These documents are prepared and implemented by the ONF.
- For other public forests, ONF, in conjunction with the relevant public owners, prepares the Development Documents. This document is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Local Prefect.

The Development Document sets objectives for forest harvesting targets and felling areas for periods of 10 to 20 years, taking into account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goals. It includes an analysis of the forest natural environment and of the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needs. It contains a felling plan.

The *Simple Management Plan (SMP)* is prepared for private forest owners and is more suited to large private forests. The SMP is tailored to the individual forest and is mandatory for properties above 25 Ha. The SMP provides for the management of a property for a period of 10 to 20 years.

SMPs are prepared by forestry experts or private forestry managers on behalf of private owners. They are submitted for approval to the Regional Centre of Forest Ownership (*Centre Rég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forest is located.

The SMP includes an analysis of the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issues concerning the forest and a description of the various forest stands. It contains a felling plan, which sets out the type, location, and frequency of fellings, and harvest rate.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eg. natural disasters), extraordinary fellings may be allowed.

The *Standard Management Regulation (SMR)* defines the modalities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the forest to which it applies. The SMR is a standard document prepared by forestry experts, the ONF, or forestry cooperatives, and is approved by the Regional Centre of Forest Ownership (*Centre Régional de la Propriété Forestière*) in the jurisdiction where the forest is located.

The SMR suits medium-sized forests. It can also be used for public forests with a comparatively modest economic potential. In the case of public forests, the SMR takes the place of the Development Document.

The SMR includes:

- the type of fellings planned;
- an appraisal of the extent and the type of harvesting being considered;
- details on the planned rotation period between two fellings, the age and diameter of harvested logs;
- a description of works required for a good maintenance of the stand and, if necessary, its regeneration.

The *Code of Good Forestry Practice (CGFP)* is a standard document made up of a series of guidelines that set forestry management recommendations in each natural region, adapted to the local economic and environmental context, with the aim of achieving a sustainable harvesting of different types of forest blocks.

The CGFP is more suited to small private forest owners who need a flexible management framework for smaller-scale logging operations and are not subject to the obligation to apply a SMP. Private forest owners can join the CGFP, agreeing to abide by it for a period of 10 years. When they register, owners hand over to the authorities an inventory of their property and a site plan of their forest plots. The CGFP is prepared by the Regional Centre of Forest Ownership and approved by the Regional Prefect.

3.2 - Administrative Felling Permit Regime

It is still possible to undertake fellings in forests where no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ation has been prepared. A threshold is set by local authorities in cooperation with the State forest authorities. If a planned felling is above the threshold, a permit issued by the Local Prefect is required. The thresholds, generally between 1 and 4 Ha, are set by local authorities based upon the geographical and forestry specificities of the area.

4 - Domestic timber processing

4.1 - Supplying timber to buyers

There are three main approaches for supplying timber to buyers:

- (i) Standing timber is sold directly to a logger who carries out the felling and then sells the timber;
- (ii) Timber is harvested and supplied to the buyer by the side of the road (the buyer bears the cost of transporting the timber and collecting the harvested logs in the forest with a logging truck); or
- (iii) Timber is harvested and supplied directly to the buyer, generally, a secondary processing business ("delivered-to-factory" timber).

Sales of standing timber is steadily decreasing in favour of "side of the road" and "delivered-to-factory". This change of practice is encouraged by the government for both the State and community forests.

4.2 - Primary processing industries in France

Once wood is harvested, sawmills undertake primary processing of the products before selling them to the secondary processing industries. The associated products created during the primary processing feed the heavy primary processing industry. The main heavy primary processing industries include:

- Pulp and cardboard industries: mechanical pulps, chemical pulps, paper and cardboard
- Veneer and panel companies: particle boards, fibreboard, insulated board, MDF, OSB
- Plywood industries: plywood, hardboards

4.3 Secondary processing industries in France

The main secondary processing industries include:

- Wooden furniture;
- Joinery, carpentry and flooring; and
- Packaging and wooden transportation structures

5. Identifying legal product from France

5.1 Exporting timber products

There is no standard document that attests to the legality of harvest.

- For logs, the export certificate is issued by the DRAAF of the region in which the phytosanitary treatment on the exported logs was conducted.

Each member country of the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has the right to formulate regulations to protect its resources, including its forests, against the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pests.

The National Plant Protection Organization (NPPO)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od in France) of the exporting country issues phytosanitary certificates attesting that consignments of plants, plant products or other articles regulated meet the phytosanitary import requirements specified by the commercial. If the requirements are met, the inspection may result in the issuance of phytosanitary certificate = export certificate, by the NPPO of the exporting country.

- Importers must present the appropriate customs documentation.

There is no specific customs procedure applicable to the export of timber and wood products from France to a third country. Timber and wood products are subject to the same export reporting requirements as goods that are not subject to export prohibition.

Different steps that the operator must follow:

1. the exporter completes the formalities at the customs office on which he is dependent and from whom the goods are packed or loaded: an export declaration is filed electronically;
2. the customs office processes the export declaration;
3. the customs office issues a release (clearance of goods);
4. the goods are transported to the customs office of exit of goods (EU border office). It is accompanied by an export accompanying document during this transport (or other proof in the context of a transit procedure);
5. the exporter notifies the arrival of the goods at the customs office of exit;
6. the customs office of exit ensures that the goods presented correspond to the goods declared;
7. the carrier notifies the exit of the goods electronically to the office of exit.
8. the customs office of exit verifies the physical exit of the goods from the territory of the European Union and confirms the exit to the export office.
9. the export office in view of the exit confirmation issues an electronic exit certification.

5.2 - Monitoring Compliance with forestry law

Compliance with the forestry code is maintained through the controls undertaken by the **MAAF** in particular its decentralised services: DRAAF and DDT.

- The DRAAF carry out controls, in respect of the EUTR, on loggers of French timber. The EUTR controls consist of documentary checks where the services make sure that the company being controlled has the documentation proving due diligence. An onsite inspection is subsequently carried out. If deficiencies are found, the authorities can

require the company to improve its due diligence processes or can directly impose financial or criminal sanctions.

- The DDT carry out controls on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e forestry code. For example, they control the proper implementation of the sustainable management documents. As part of their duties, the officers in those services have criminal policy powers allowing them to issue infringements. The officers of the ONF are equally authorised to report infringements in public forests. In 2016, around 500 infringements were reported, with 200 of those subjects to prosecution.

Overall, it appears that the risk of illegal timber being placed on the international market is negligible.

The frequency of controls conducted by the various inspection authorities, the transparency of procedures, the low corruption risk contribute to an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Forestry Code and other domestic law regulations.

Controls by authorities focus on major forest properties and processing companies. French wood traded in international markets are overwhelmingly originating in those producers where the risk is very low.

Controls are not as frequent in small forestry properties. However, risk of illegal felling is negligible in those small plots. Wood originating in those plots are intended overwhelmingly for the domestic rather than international market.

5.3 - Private Certification systems used in France

If the regulated timber product you intend to import is certified by the *Programme for the Endors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PEFC)* or the *Forest Stewardship Council (FSC)* you can follow the 'Timber Legality Framework' pathway to conduct your due diligence.

- **PEFC Certification**

PEFC is the most established forestry certification in France. The ONF is committed to the PEFC certification system for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public forests. ONF has ISO 9001 and ISO 14001 certifications and is part of the PEFC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certification scheme (which covers 100% of state forests and 57% of the municipal forests). For secondary-processing industries, PEFC has developed a chain of custody's certification, to ensure an improved traceability of the wood-based products.

According to PEFC data, 8.2 million hectares of forest are certified, representing 68,000 forest owners and 3,000 companies are certified to.

- **FSC Certification**

Since the beginning of 2017, the ONF is in the process of being certified by the FSC. FSC certifies forests and supply chains. According to FSC data, 56,204 ha of forest and 745 chain of custody are certified in France.